

VII

서울학 연구와 지리학적 토대

최 영 준 (고려대학교 지리교육학과 교수)

목 차

.....

1. 서 론
2. 서울의 立地 : 過去 · 現在 · 未來
3. 서울의 自然環境 : 風水說과 科學的 論理
4. 서울학의 地理學的 接近
5. 결 론

1. 서론

서울은 서울 시민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우리 국토의 심장부이다. 또한 올림픽 경기를 치른 이후 서울은 인류공동체를 표방하는 국제사회에서도 세계적인 대도시로 그 위상이 높아졌다. 그러나 한편 서울은 巨大都市의 문제아라는 명예롭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결코 서울의 참모습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울의 原形을 재발견하고 문제점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서울이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기 시작한 계기는 아마도 日帝에 의해 자행된 '도시구조 개선사업' 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동란 후의 戰後復舊 사업이 무질서하게 진행된 나머지 서울의 원형복원의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서울시 구조상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1960년 이후의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서울은 전국 각지로부터 移入하는 많은 인구를 수용하여 급팽창하게 되었는데, 그 팽창속도는 위정자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였기 때문에 도시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대규모 이질집단의 생존경쟁의 터가 된 서울은 오늘날 애항심이 결여된 공동체사회로 변하였다. 그러므로 고궁 등 문화재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고층건물에 가려지거나 산줄기를 끊어 길을 만들어도 별로 문제삼지 않았다. 경제적 이익이나 시민의 편의를 위한 개발이란 명분 앞에 서울의 자연과 문화경관은 손상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은 물질보다 정신문화를 중하게 여겨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國土觀 내지 鄉土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지역연구를 수행하면서도 땅 자체는 소홀히 여기고 오히려 역사, 언어, 종교, 풍속, 인물, 전설 등 非物質的 屬性에 큰 비중을 두고, 그러한 추상적 문화유산의 연구를 통하여 애국심 또는 애항심을 고취시키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애국심과 애항심은 자신이 낳고 자란 땅에 대한 이해와 애정 없이는 결코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襄陽 南大川에 방류하는 연어새끼들이 어김없이 제고향을 찾아오고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고국을 찾아보며, 또 명절 때마다 일어나는 민족의 대이동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물고기의 회귀는 본능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고향을 찾는 것

은 친지방문 보다도 고향산천과 관계가 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고향이란 구체적인 형태와 특성을 가진 장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서울학' 이 하나의 학문으로 성립하자면 뚜렷한 주제를 표방해야 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서울 시민의 고향인식 고취일 것이다. 이와같은 자아인식을 서울학의 본질이라 할 때 우선적으로 유의할 점은 시민들 자신의 몸담고 있는 향토 서울의 땅과 그 위에 이룩된 문화유산을 탐구하는 地域 研究를 서울학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서울학이 하나의 地域科學으로 성립하는데 필요한 요건으로 우선 서울의 위치와 자연환경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서울의 자연조건이 도시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우리 선조들은 자연조건 중에 장점을 어떻게 활용했고 또 단점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서울학의 토대구축과 방향설정 에 있어서 地理學이 어떤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으며, 또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서울의 立地 : 過去 · 現在 · 未來

한 나라 심장부의 위치가 국가 또는 국민생활에 주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울의 입지를 논하려면 우선 역사시대의 韓半島 주변정세의 변천과정과 그에 따른 서울지방의 전략적 비중의 변화를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는 아시아 대륙 동북쪽에서 太平洋을 향해 돌출한 반도국가로서 滿洲와 일본열도 사이의 陸橋와 같은 위치에 놓여있다. 이점 때문에 국력이 강할 때 우리 민족은 대륙은 물론 주변바다로 활동무대를 넓히고 대륙문화와 해양문화를 동시에 수입하여 정치·경제·문화적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반면에 국력이 약한 때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각축장으로 변했기 때문에 일부 정치학자들은 이 사실만을 크게 부

각시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그릇된 결론을 내린다. 그런데 소위 地政學의 位置란 20세기초 영국 지리학자 맥킨더(H.J.Mackinder)가 발표한 논문¹⁾에서 나온 개념인데, 맥킨더는 국가의 위치가 민족사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면서 유라시아 대륙 내부의 심장부를 차지하는 민족이 전세계를 지배하며 한국을 비롯한 주변지역은 국제정치 질서상 대륙민족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논설을 폈다.²⁾ 이러한 決定論的 思考는 후에 나치 독일과 일본제국주의의 팽창전략의 논리로 악용되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한강하류지방은 본래 百濟의 발상지였으나 三國의 분쟁지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 지방을 차지한 新羅는 한반도 통일을 완수하였다. 그러나 서울이 명실공히 한반도의 중심지로 부각된 것은 朝鮮王朝의 건국이었다. 이로써 定都 600년을 맞은 오늘날 정도의 배경과 의미를 재검토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바, 우선 서울의 위치와 관련되는 문제부터 논해 보겠다.

첫째, 조선조 건국 당시의 開城은 고려 500여년의 수도로서 주민 대부분이 前朝에 깊은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李太祖는 자신의 통치의를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는 新國都 건설의 불가피성을 인식하였다.³⁾ 전제왕권국가에서 신 왕조의 遷都는 지배자가 실천해야 할 기본원칙의 하나였던 바, 14세기 이슬람 사학자 이븐 할둔(Ibn Khaldun)은 ‘신 왕조는 신 수도를 정하고 舊都의 지배권을 장악하는 즉시 주민들은 신수도로 이주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천도 후 구도에는 소상인, 일용노동자, 농민 등 정치적 인식이 비교적 낮은 백성들만 남게 되어 나라안에 불만계층이 감소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도 신 왕조로 끌리기 때문이다.’⁴⁾ 라고 하였다. 이태조의 한양정도 역시 이와같은 정치적 의도 하에 추진되었으며, 이는 서울의 지리적 위치를 부각시킨 계기가 되었다.

둘째, 이븐 할둔은 통치권의 초점인 수도는 마땅히 왕국의 중앙에 위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⁵⁾ 태조의 즉위 당시 明은 과거 元이 점령했던 慈悲嶺 및 鐵嶺 이북의 영유권을 주장했던 바, 당시의 국제정세를 감안할 때 개성보다 남쪽인 한양으로의 천도는 적

1) Mackinder, H.J, 1904,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Geographical Journal*, vol.23, pp. 421~444

2) 상계논문, pp. 436~437

3) 崔永俊, 1990, 嶺南大路,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 124

4) Ibn Khaldun, 1987, *The Muqaddimah*(Translated by F.Rosenthal), London:Routledge, p. 291

5) 상계서, p. 130

절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세째, 천도 후 漢城은 전국의 육로가 수렴되는 X字型 교통망의 중심지가 되었고 동시에 한강을 통해 황해로 진출할 수 있는 요지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교통조건은 외적의 침입시 집중공격의 목표가 되어 방어상 취약성을 드러내기도 하였으나⁶⁾ 이는 국방력 강화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였다.

네째, 국가의 통치가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국토면적이 適正規模에 가까워야 한다.⁷⁾ 수도의 통치력이 전국 각지에 효율적으로 미치려면 국토의 규모가 적정 선에 달해야 하는데, 그러한 수도를 行政型首都라 한다.⁸⁾ 조선시대의 한성은 이상적 행정형 수도의 범주에 속한다. 이점에서 한성은 고구려의 평양이나 고려의 개성과 같이 국가 발전의 전진사령부 역할을 한 帝國型首都와 구별된다.⁹⁾ 수도의 성격으로 볼 때 한양천도는 만주땅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통치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자 한 태조의 정치적 감각을 구체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국토가 분단된 현실에서 볼 때 서울의 입지는 결코 유리하지 않다. 왜냐하면 북쪽의 적대세력이 불과 50Km 거리에 막강한 군사력을 배치하여 서울 시민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견지에서 볼 때 하나의 적대세력이 국경에 무력을 집중시키면 상대방도 대응조치를 취하게 되는 바, 이는 무력도발을 일삼는 쪽은 물론 자위의 입장에 서는 쪽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준다. 휴전선의 긴장상태가 고조될 때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남한 땅의 중앙에 위치한 大田으로 수도를 옮기자는 제안이 대두되었는데, 만일 천도가 구체화된다면 이는 국가의 핵심부를 안전한 후방으로 옮기는 이점이 있을지 모르나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지를 포기하는 동시에 분단이후 반세기 동안 온 국민이 이룩해 놓은 기반이 흔들리는 중대사를 유발시킬 것이다.

오늘날 서울의 기능은 경기도 대부분을 포함하는 광대한 首都圈에 미치며 그 空間構造도 대단히 복잡하다. 뿐만 아니라 전국이 서울을 중심으로 유기적 균형을 이루면서 외형상으로나마 一日生活圈化하였다. 그런데 우리 국토는 宗主都市 서울을 핵으로

6) 孫禎睦, 1977, 朝鮮時代 都市社會研究, 一志社, p. 33

7) Ibn Khaldun, 전계서, p. 130

8) Cornish, V., 1922, *The Great Capitals: An Historical Geography*, London: Methuen, p. 8

9) Spate, O.H.K., 1942,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 cities", *Geographical Review*, vol. 32, pp. 624-625

한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을 뿐이지 서울 자체가 지방을 위한 완벽한 기능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지방은 오직 '위대한 서울', '세계 속의 서울'을 만들기 위해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낙후의 길을 걸어왔고, 이와같은 서울에 대한 지나친 배려 또한 서울의 비대화를 촉진시킨 것이다.

서울의 인구집중도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이다. 서울의 집중도가 24.4%인데 비해 동경은 9.8%, 런던은 11.8%, 파리는 3.9%에 불과하다.¹⁰⁾ 모든 기능이 서울로 집결되고 보니 서울을 생활터전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서울과 그 주변지역으로 집중하였다.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만 서울 밖 수도권 주민들은 직업, 교육, 문화, 의료, 교통, 상수도, 도시가스 등 생활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서울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한 면적의 10%에 불과한 좁은 땅에 45%이상의 인구가 밀집되고 보니 아름답던 자연경관은 파괴되고 하천과 공기는 극도로 오염되었다. 게다가 전국 각지로부터 擬理想郷인 서울로 모여든 인구가 시민의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서울은 각박한 사회풍조가 가져온 각종 사회문제를 안게 되었다. 수도권 과밀화와 그로 인한 문제점은 서울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으면서도 기능상 중앙의 역할을 과도하게 독점하고 있는데서 연유한 것이다.

전략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입지한 서울이 6·25의 참화를 딛고 불과 40여년만에 세계적인 거대도시로 발전한 것은 경이적인 사실이다. 만일 한반도가 통일되고, 통일 한국의 수도의 지위를 확보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서울은 명실상부한 한민족의 상징이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부아시아 국가들의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는 추세로 볼 때 21세기에는 북태평양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이룩되고 서울은 아시아의 내륙, 유럽,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지의 육·해·공로가 집중되는 요지로 부상할 수도 있다. 소련을 비롯한 동부유럽 공산체제의 붕괴와 중국의 개방무드를 타고 반세기 동안 폐쇄되었던 대륙의 육로와 공로가 서서히 개방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 동쪽의 東海圈과 서쪽의 黃海圈, 북쪽의 大陸圈과 남

10) 1995년 1월 1일 朝鮮日報 참조.

「1992년말 서울인구는 약 1100만명이었고, 서울 외곽 수도권 인구는 약 1000만명으로 이는 전국인구의 약 45%에 달하는 것이다.(1993년 한국 통계연감 참조)

쪽의 海洋圈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그 主軸은 서울로부터 남북으로 뻗게 되리라는 전망이다.¹¹⁾

3. 서울의 自然環境 : 風水說과 科學的 論理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은 함께 도시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로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다시 말하면 자연환경이 도시의 발달에 끼치는 영향은 적지 않은데,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자연환경은 오히려 인간에 의해 변형되는 것이다. 도시의 기원과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세계의 저명한 수도들은 일반적으로 自然的 首都와 人工的 首都로 구분된다. 전자는 점진적으로 발달하여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한 도시이며 후자는 국가의 정치중심 기능을 살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건설한 도시이다.¹²⁾ 즉 전자는 歷史都市이고 후자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건설된 현대도시이다.

철저한 도시계획에 따라 단기간에 건설된 도시들은 대체로 지형적 장애를 받지 않는 저평한 지면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구획정리가 기하학적이며 합리적이다. 반면에 서울을 비롯한 역사도시들은 대체로 지형조건과 역사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도시구조가 복잡하고 가로망도 불규칙한 편이다. 그러나 서울은 결코 무계획적으로 성장한 도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최근 학계에서는 서울의 도시구조 속에서 한국적인 특수한 조직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즉 서울은 정도 초부터 風水地理의 원리를 기본틀로 한 도시계획에 의해 건설되었으므로 서울의 구조를 서양적 관점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대두된 것이다. 지형을 풍수적 관점에서 해석하면서도 도시설계를局的 내부

11) Woo-ik Yu, 1993, "The Northeast Asian Rim: A geographical perspective",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28(4), pp. 316~317

12) Spate, O.H.K., 1942, 전제논문, p. 622

평면에 배치한다는 관점인데, 이에 따르면 鮮初의 漢城府는 틀림없는 계획도시이다. 그러나 한성시가지 면적은 현재 서울의 약 1/40에 불과한데, 일제시대부터 훼손되기 시작한 기본구조가 1960년대 이후에는 더욱 심한 변화를 경험하여 소위 都心이라 일컫는 '原서울'이 현대 서울의 도시구조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일인들이 건설한 용산, 영등포 일대의 시가지와 196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여의도, 강남, 잠실, 마들평 일대의 시가지들은 계획적으로 건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原서울의 구조를 거의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 시가지는 각 부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 무질서한 도시라는 인상을 풍긴다.

이와같은 무질서한 도시구조를 지형적 장애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는 서울의 자연적 景觀美와 歷史性을 무시하는 구실에 불과하다. 일인들은 식민지 경영상의 편의를 목적으로 서울을 일본식 도시로 개조하면서 성곽을 파괴하고, 궁궐을 철거한 자리에 총독부 청사를 지었으며, 가로망을 바꾸었고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산을 깎고 저습지를 매축하였다. 이러한 토목사업의 성과를 내세워 일인들은 풍수라는 허황된 미신에 근거하여 쇠락했던 서울을 근대화시키는데 자신들이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오로지 식민지 경영상의 편의를 목적으로 수행된 도시구조 개선사업에 지나지 않았다.¹³⁾ 유사한 자연파괴 행위는 1960년대 이후의 '대서울 건설' 과정에서도 자행되었다. 모든 토목사업이 편의 위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풍조 때문에 산을 허물어 저지대를 메우고, 하천의 曲流를 직선유로로 만들었으며, 토석채취로 河中島들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림으로써 획일적인 도시계획에 유리한 平面空間이 창조되었다. 신시가지에는 聖所처럼 인식되어 온 내사산을 압도하는 고층건물들이 들어섰으며, 대역사의 주인공들은 소위 '漢江의 奇蹟'을 만든 영웅으로 추앙되었다. 이러한 大役事에 앞서 마땅히 선행되었어야 할 '서울의 발생초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자연환경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고려한 연구가 미비하였고¹⁴⁾ 과학적 논리를 가지고 자연의 개조로 인해 유발될 재난과 후유증을 경고한 현자들의 목소리는 대세 속에 묻혀버렸다. 반면에 최근에는 서울이 지닌 구조

13) 李泰鎮, 1994, "조선시대 서울의 都市發達 단계", 서울학연구 창간호, p. 39

14) 성효현, 1994, "서울의 도시성장과 자연환경" 서울의 자연과 지리인식체계:94 서울학세미나 I, 서울학 연구소, p. 1

적 문제점들을 風水思想으로 풀어보려는 일부 학자들의 시도가 오히려 대중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풍수에 호의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은 우선 인위적 개조가 가해지지 않은 상태의 서울의 지세를 이상적인 모델로 설정하고 이를 漢陽定都의 배경과 연관시키고 있다. 그리고 풍수상의 吉地에 적합한 도시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明堂의 局面이 日帝時代에 파괴된 과정을 논한다. 나아가서 오늘날 서울이 안고 있는 공해와 도시문제는 일제시대 이후에 자행된 지형 및 도시 구조 개선에 따라 명당의 조화가 깨진 데서 나타난 결과이며,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는 전통적 지리과학인 풍수의 연구가 요구된다고 주장한다.¹⁵⁾

과학기술의 수준이 낮았던 前産業時代에는 도시의 입지선정에서 자연환경을 중요시하는 것이 당연하였다. 특히 지형은 시가지의 배치와 가로망 설정, 성벽의 축조에 큰 영향을 주었고, 하천은 도시의 교통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븐 할둔은 중세 이슬람 도시의 입지로 첫째 외적의 침입을 막기 쉬운 방어상의 요지, 둘째 내륙수로, 도로, 해로 등이 발달한 곳, 세째 환경이 쾌적한 곳, 네째 수질 좋은 물이 풍부한 곳, 다섯째 비옥한 농경지가 분포하는 곳 등을 들었다. 즉 도시는 특수한 자연조건을 갖춘 곳에 성립되며, 또 그러한 도시라야 정치적 변동의 영향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¹⁶⁾ 그런데 오늘날 고려 및 조선시대의 옛 國都의 입지를 논하면서 객관적, 과학적인 관점보다 風水의 地相法을 앞세우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소위 지상법에서 말하는 명당의 개념에는 藏風法, 得水法, 定穴法 등이 있는데, 장풍국(개성의 지세)을 제일로 치고 득수국을 다음으로 꼽는다. 득수법은 생기를 전하는 물과 조화를 이루는 形局을 살피는데, 水는 陽에 해당되므로 물이 있는 곳에 반드시 생기가 있다고 보고 陰인 산으로 둘러싸인 장풍국보다 득수국이 더 국도의 입지로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왜냐하면 국도의 터는 넓은 시가지와 농경지를 요하는데, 대하천을 끼고 있는 득수국은 지역이 광활하고 웅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득수국은 장풍국에 비해 짜임새가 덜 정비되지만, 서울은 四神砂가 고루 갖춰진 明山吉地일 뿐 아니라 한강 수운의 이점과 넓은 생산지를 가지고 있어 개성보다 큰 도움으로 발전

15) 李夢日, 1991, 韓國風水思想史研究, 日駟社, pp. 9~11

16) Ibn Khaldun, 전계서, pp. 267~269

할 수 있었다¹⁷⁾는 것이다.

太祖 李成桂와 그의 참모들은 국도는 곧 국가이며, 국가는 국도에 의해 좌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새 수도 건설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¹⁸⁾ 그들은 새 수도 후보지로 鷄籠山, 毋岳, 漢陽 등지를 검토한 후에 위치, 지형, 도시건설의 편의성 등 여러 조건에 가장 유리한 한양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근래에는 한양 定都의 논거로 삼았던 이론은 오직 풍수였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¹⁹⁾ 풍수의 입장에서 볼 때 한양과 같은 길지·명당은 이태조와 같이 인덕을 갖춘 사람에게만 하늘이 내리는 것이라지만 합리적 사고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던 유학관료들이 과연 풍수설에 따라 수도의 입지선정과 도성설계에 임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²⁰⁾ 우선 毋岳에 관해 成石璘은 ‘산수가 모여들고 漕運이 편리하여 가히 吉地라 할만 하나 明堂이 기울어지고 좁으며 뒷 산이 낮아 그 규모가 왕자의 도읍으로는 부적당하다’²¹⁾고 하였다. 또 漢陽의 입지에 대해 趙浚과 金士衡은 ‘表裏山河의 형세가 뛰어난 곳으로 일컬어져 왔습니다. 사망으로 道里가 균등하고 배와 수레의 교통이 좋으니 이곳에 영구히 도읍을 정하는 일은 진실로 하늘과 백성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다’²²⁾ 하였다. 위의 인용문을 보건대 풍수설은 도성입지의 논리로 약간 참조되었을 뿐이고 교통, 경제 등 실제적인 면이 오히려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양의 主山을 정하고 국도의 坐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유학자 鄭道傳과 풍수대가 無學의 논쟁이 주목된다. 무학은 仁王山을 鎮山으로 하고 白岳을 靑龍, 木筧을 白虎로 삼아 시가지를 東向으로 건설하자는 논리를 폈는데, 그 이유는 백악(342m)이 뚜렷하게 높지 못해 목덕(265m)이나 冠岳山(629m) 등에 억눌리는 형세이기 때문이라 했다. 그러나 君王은 남쪽을 향해 政事를 펴야 하므로 궁궐을 남향으로 앉혀야 한다는 정도전의 견해²³⁾가 받아들여져 도성계획에 반영되었다. 만일 무학의 의견이 용납되었다면 왕궁과 관아의 배치, 가로망의 패턴 등이 현재와 달라졌을 것이다.²⁴⁾

17) 「擇里志」, 卜居總論 山水

18) 孫禎陸, 전계서, pp. 29~30

19) 崔昌祚, 1984, 韓國의 風水思想, 民音社, p. 240

20) 崔永俊, 1994, “風水와 擇里志”, 韓國史 市民講座 14집, 一潮閣, p. 102

21) 太祖實錄 卷6, 太祖 3年 8月 己卯

22) 太祖實錄 卷6, 太祖 3年 8月 辛卯

23) 村山智順, 1931, 朝鮮의 風水, 朝鮮總督府, pp. 697~699

24) 崔昌祚, 전계서, p. 226

서울 정도와 도시계획에 끼친 풍수의 영향에 대한 건축학계와 지리학계 일부의 시각은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면보다 다소 강한 것 같다. 왜냐하면 긍정적 시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비판이 별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축학계의 주장을 몇 가지 소개하여 보기로 한다.

이상구는 ‘조선시대 서울의 입지형태는 풍수지리적 입지선정에 의한 것’²⁵⁾이라는 전제하에 풍수설이 서울의 도시구조에 끼친 영향을 논하였다. 이원교 역시 한양의 공간구조를 풍수설에 따라 설명하면서 풍수와 地理를 동일시하였다.²⁶⁾ 그러나 이상해는 풍수조건이 도읍지 결정에 어느 정도 고려된 것은 사실이나 한양정도가 전적으로 풍수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폈다.²⁷⁾ 한양정도의 배경은 외국의 건축학자들에게도 매력적인 듯 하다. 프랑스 학자는 ‘서울은 풍수설의 논리에 따른 극동지역 수도의 입지선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예’²⁸⁾라고 정의하고 명당을 호위하는 청룡과 백호가 조화를 이루었다고 서술했다.²⁹⁾

건축학계에서 풍수설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공간설명 방법이 신비스럽고 해석이 명쾌하다는 점 때문인 듯 하다. 또한 최근의 國學붐과 서울 정도 600년 기념행사에 따른 복고 분위기에 편승하여 풍수가 전통적 공간개념으로 적절하다는 인식도 한 몫을 한 것 같다. 하나의 상징적 사고는 그 틀이 비교적 단순한 것이 특징인데, 풍수도 예외가 아니다. 건축학자들 중에는 서울의 지세를 ㄷ자형으로 열린 분지이며, 인왕산 골짜기에서 발원한 錦川이 육조거리 앞을 돌아 청계천이 되고, 이 물이 동쪽으로 逆流하다가 한강에 합류하는데, 이는 풍수설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形局이라 한다. 한양 도성계획은 이러한 지세를 따라 동서축과 남북축을 형성하는 독특한 질서와 樣式을 갖추었다고 한다.³⁰⁾

지리학계에서도 풍수를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으나 그 수는 한정되어 있다.

25) 이상구, 1994, “조선시대 서울의 형태적 특성”, 94 서울학세미나II:서울조성의 원형, pp. 3~4

26) 이원교, 1994, “한양의 지리체계와 공간구조적 특성”, 94 서울학세미나 I:서울의 자연과 지리인식체계, pp. 22~41

27) 이상해, 1994, “조선조초 한양 도성의 풍수지리적 특성”, 94 서울학세미나 I, p. 52

28) Clément, S, Clément, P. and Shin Yong-hak, 1987, *Architecture du Paysage en Extrême-Orient*, Paris: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p. 211

29) 상계서, p. 219

30) 상계서, pp. 212~213

예를 들면 최창조는 ‘한양은 지형적으로 山水環抱, 水口關鎖, 山水逆勢와 일치하는 것으로, 현대의 취락입지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양정도는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³¹⁾ 임덕순 역시 한양은 명당이 넓고, 水口가 가려지며, 산맥과 하천의 방향이 逆의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국도 풍수에서 중요시하는 明山吉地의 형상이라고 하였다.³²⁾

현대의 학자들이 서울을 논하면서 왜 정도 당시의 한양에 초점을 맞추는가? 현재의 서울은 조선시대의 한양에 비해 면적이 36배 인구는 약 50배를 넘는다. 또한 당시에는 도시의 주요 시설들이 도성내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서울시 도처에 주요 시설들이 입지하여 粟地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 풍수설은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인식하는 방법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나³³⁾ 오늘날에는 풍수에서 금기시하는 지형의 개조가 대규모로 행해지고 있다. 이원교의 ‘일본인들이 우리 나라를 말살하기 위하여 경복궁 앞에 총독부 건물을 지어 조선왕실의 龍脈을 끊었다’는 풍수적 주장³⁴⁾은 과학적 근거를 갖지 못하며 오히려 일제 식민통치의 치욕을 씻기 위해 구총독부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따라서 서울학에서의 서울의 지형연구는 한양분지에 국한시키지 말고 그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며 풍수적 논리에 입각한 지형설명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서울의 지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서울의 지형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조선시대 및 현재의 서울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의 지형적 특성을 개관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서울의 범위를 말할 때 중심부는 흔히 內四山 이내를 가리키고 외곽지역은 外四山 안쪽을 가리킨다. 외사산은 북쪽의 北漢山(836m), 남쪽의 冠岳山(629m), 동쪽의 龍馬山(348m), 서쪽의 德陽山(125m)을 일컬으며 이 산들을 연결하는 동서 22Km, 남북 23Km의 마름모형 지역을 대체로 서울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이 지역은 현 서울 면적의 약 80%에 불과하며, 동남쪽의 잠실과 송파지구, 서남쪽의 시흥·영등포지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江北地域은 대체로 조선시대의 한성부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31) 崔昌祚, 전계서, p. 229

32) 任德淳, 1994, 600년 수도 서울, 지식산업사, pp. 52-53

33) 李基東, 1994, “現代 韓國社會와 風水地理說”, 한국사 시민강좌 14, p. 129

34) 이원교, 전계논문, p. 39

조선시대 한성부의 경역은 都城과 城底十里를 합친 지역으로서 동쪽은 미아리-용답동, 서쪽은 역촌동-모래내, 북쪽은 비봉-북한산-정릉, 남쪽은 한강변에 이르렀다. 이는 1911년 일제가 한성부를 京城府로 개칭하면서 제작한 『京城府地圖』상의 境域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사료된다.³⁵⁾ 외사산 안쪽에 속하면서도 강남땅은 한성부에 속하지 않았는데, 이곳은 한성 주민에게 채소를 비롯한 각종 생필품을 공급하는 생산기지인 동시에 문화적으로도 한성과 긴밀하였던 실질적인 서울권에 속하였다. 그러므로 礪溪는 「郡縣制」에서 한강 남쪽 10리에 미치는 廣州, 果川, 衿川, 陽川의 일부와 한강 북쪽의 高陽, 楊州의 일부도 한성부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³⁶⁾ 그러므로 조선시대 서울의 지형을 논할 때 강남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외사산 내의 서울지역은 지형적으로 볼 때 중앙산지, 동부저지, 서부평야로 구분된다.

중앙산지는 북한산에서 남장대-白岳-仁王-木覓-응봉으로 이어져 東湖를 만나 그치는 강북산지와 관악산에서 牛眠山을 지나 宣陵-압구정으로 이어지는 강남의 구릉성 산지와 한강을 사이로 마주보고 있다. 강북산지의 중심은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漢陽盆地로서, 이 분지는 화강암이 침식을 받아 이루어진 평탄면이다. 분지의 동쪽에는 20m 미만의 저지대가 약간 분포하나 대부분의 지역이 해발 20~40m의 고도를 유지하며 서쪽이 다소 높기 때문에³⁷⁾ 仁王山에서 발원한 錦川을 원류로 하는 청계천은 옥류천, 중화천 등 지천의 물을 모으면서 동쪽으로 흐른다. 청계천은 長安坪에서 중랑천과 합류하여 한강으로 들어간다.

강북산지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북한산으로부터 갈라진 산지들이 서울분지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실이다. 동쪽 지맥은 홍릉-시립대학을 지나면서 낮아져 장안평 북쪽에 이른다. 서쪽 지맥은 응봉-백련산을 지나 모래내 앞에서 끝난다. 이 산맥의 외곽에 또 하나의 방벽이 있으므로 한양분지는 세겹의 산지로 둘러싸인 셈이다.

동부저지는 중랑천 유역에 발달한 충적평야로서 북쪽으로부터 마들평, 長安坪, 뚝섬, 잠실 등으로 구분된다. 한강의 자연제방에 해당되는 뚝섬은 해발고도가 10~13m로

35) 朴慶龍, 1994, 開港期の 漢城府 研究, 송실대 박사학위 논문, pp. 8~9

36) 楊普景, 1994, “서울의 공간확대와 시민의 삶”, 서울학연구 창간호, pp. 51~52

37) 성효현, 전개논문, p. 3

서 안쪽의 장안평보다 약 3m 정도 높기 때문에 장안평 일대는 背後濕地에 해당된다.³⁸⁾ 지금은 소멸되었으나 잠실, 부리도, 무동도, 저자도 등도 동부저지의 충적평야에 속하였다. 서부저지는 龍山으로 흐르는 蔓草川, 모래내, 昌陵川, 安養川 등 한강지류 및 본류를 따라 발달된 충적평야로서, 용산역 일대의 평지, 난지도 및 사천 일대의 평지, 창릉천 유역의 一山들, 안양천 유역의 陽坪 등으로 이루어졌다. 여의도 셋강에서 鹽倉에 이르는 약 4Km는 한강의 자연제방에 해당되며, 이 곳은 안양천보다 고도가 높기 때문에 배수가 불량하여 19세기말까지 안양천 유역에는 넓은 배후습지가 발달했었다. 이와 유사한 지형은 모래내와 창릉천 유역에도 발달했었다³⁹⁾ (그림 1).

동부저지 및 서부저지는 乙丑年 大洪水(1925년 7월)때 대부분 침수되었으며, 그후 1972년, 1984년에도 상당한 면적이 홍수의 피해를 입었다.⁴⁰⁾ 이러한 저습지는 수차에 걸친 제방축조, 하안정비, 매립공사 등을 통하여 1970년대부터 시가지로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곳은 여의도, 강남, 반포, 잠실지구이다. 이와같은 한강개발사업의 결과 난지도, 밤섬, 여의도, 부리도, 저자도, 무동도 등의 河中島가 지도상에서 사라졌다.

서울의 지형은 최근 수십년간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하였다. 그러나 토목사업의 기초가 될 지질구조, 지형, 수맥 등에 관한 정밀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떤 지역이나 땅을 파거나 산맥을 끊는 것을 삼가해야 할 장소가 있으며 시가지 조성을 자제해야 할 시가지대가 있다.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고 때로는 지진 또는 지반 침하에 대비해야 할 장소도 있다. 특히 하천관리는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한강은 지류의 복개, 본류의 유로 변경과 河岸의 정비를 통해 인공하천처럼 모습이 바뀌었다. 따라서 홍수와 한발시 자동적으로 수량조절의 기능을 발휘하던 배후습지가 소멸되고 유속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던 曲流 유로는 직선화하였다. 이와 같은 개발사업으로 비록 우리가 하천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나 한강의 自淨能力 상실로 인한 수질오염과 지형변화로 인한 홍수의 피해를 수시로 입게 되었다.

지리학은 땅의 이치를 파악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儒者들은 ‘땅은 다스림의 근본

38) 權赫在, 1984, “漢江 下流의 庶積地形”, 高麗大學校 師大論集, pp. 93-97

39) 1896년 日本軍 참모본부 첩보대에서 제작한 1:50,000 지형도 참조

40) 權赫在, 전계논문, p.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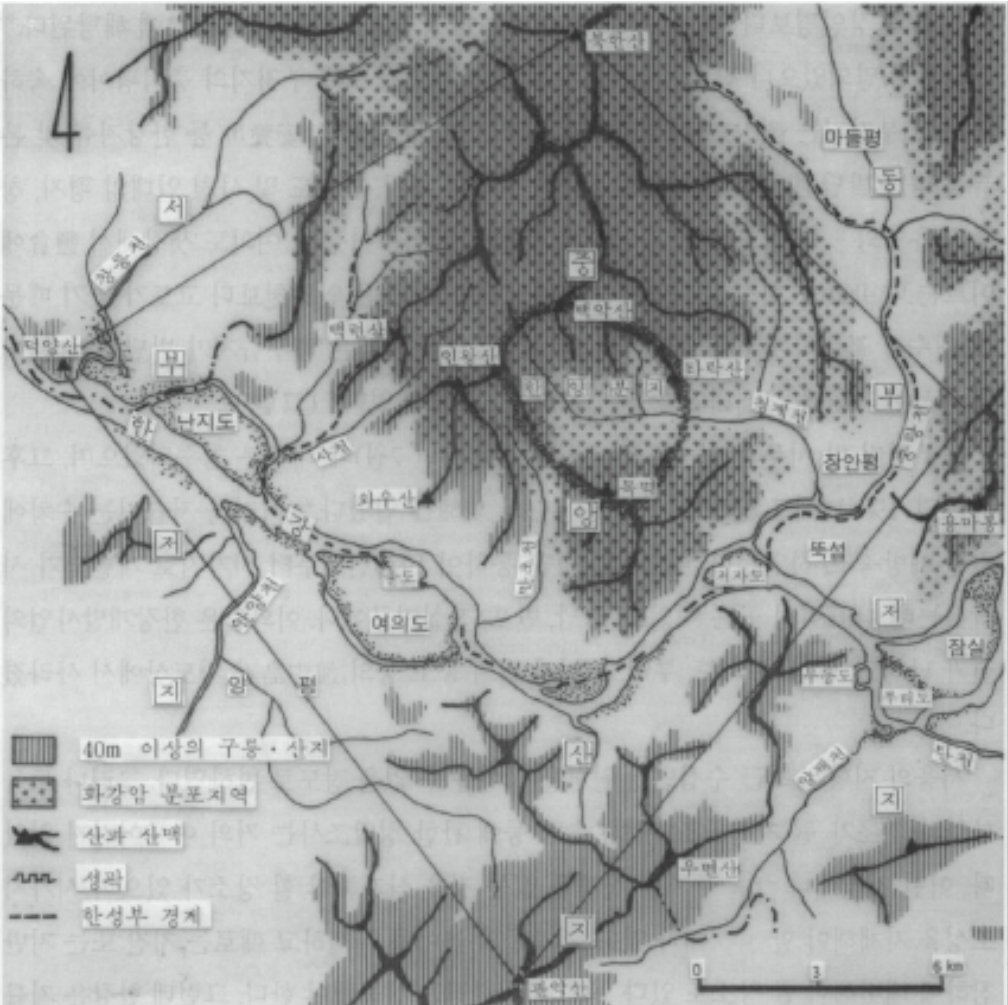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의 지질과 지형: 북한산과 관악산을 잇는 축을 따라 산지가 남북방향으로 발달하였다. 이 산지의 중심이 漢陽盆地인데, 이는 화강암이 풍화되어 이루어진 침식분지이다. 중앙산지의 좌·우에는 각각 동부저지와 서부저지가 분포한다. 外四山을 연결한 사각형은 실질적인 조선시대의 수도권의 범위를 나타낸다.

이기 때문에 땅이 고르고 조화로우면 다스림 또한 바르게 된다' 고 하였다. 오늘날 서울은 좁은 땅 위에 과도한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데, 이는 위정자들이 서울을 자신들의 업적의 상징으로 과장하여 선전한 결과이다. 서울의 자연경관이 수려할지라도 이를 과도하게 이용하면 오염되고 파괴될 수밖에 없다. 서울의 과밀화로 인하여 자연의 조화는 깨어지고, 그로 인해 자연환경이 오염되었을 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악화되었

다. 이를 두고 환경문제를 푸는 길은 풍수사상에 바탕을 둔 전통적 환경인식 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⁴¹⁾ 그러나 이 문제는 서울의 자연환경, 지질구조, 산지형, 평야, 토양, 하계망, 수자원, 기후 등 - 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4. 서울학의 地理學的 接近

서울학은 未來指向의 목표보다는 축적된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창조하는 데에 비중을 두는 학문으로서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려면 우선 기존의 서울연구를 '서울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고 동시에 연구자료의 목록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본장에서는 서울학의 地理學的 목표를 논하고, 다음으로 접근법을 모색하며, 마지막으로 활용가능한 연구 자료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오늘날 국내에는 다수의 地域研究團體들이 설립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소에서 중점을 두는 분야는 역사, 정치, 경제분야이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地理는 소외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 지역의 땅과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추상적인 학문이 지역연구 행세를 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우리는 地域이란 용어의 개념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地'란 땅 또는 자연을 의미하고 '域'은 공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역은 일정한 면적을 가진 땅과 그 위에 전개되는 산·평야·하천·식생 등 자연경관을 포용한다. 물론 주민들이 이룩해 놓은 취락, 농경지 등의 문화경관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지리학의 입장에서 볼 때 서울학이 학문적 位相을 정립하려면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地域科學의 기초를 다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세계화를 지향하

41) 李夢日, 전계서, pp. 33-34

고 있는 서울의 경우, 자칫하면 서울학을 국제화의 수단이나 미래지향적 테마의 연구로 인식할 우려가 없지 않은데, 서울학은 세계에서 단 하나 뿐인 서울지역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사실도 강조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미국 지리학자 싸우어(C.O.Sauer)가 지역연구의 기본단위를 포괄적 특수지역으로 정의한 사실과 ‘한 도시를 완벽하게 복제한 도시는 없다’고 한 발언⁴²⁾은 지역과학으로서의 서울학의 목표 설정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지리학자 페네만(N.M.Fenneman)은 지리학의 핵심은 地域研究라고 하였다⁴³⁾. 학문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에는 지리학, 역사학, 철학 등이 기초학문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근대 학문이 발달하면서 오늘날 지리학의 인접과학으로 꼽히는 지질학, 기상학, 식물학, 경제학, 인류학, 정치학, 사회학 등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 학문들은 간혹 學際間的 교류를 갖기도 하나 지리학처럼 여러 분야와 영역을 공유하는 예는 거의 없다. 어떤 면에서 지리학은 인접학문에 비해 학문적 독자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역사지리학자가 서울의 역사를 논할 때 사학자를 따르지 못하고, 지형학자가 서울의 암석과 토양을 연구할 때 지질학자보다 능력이 뒤진다. 그러나 사학자와 지질학자가 함께 서울학 연구를 수행할 때 양자간의 정보교환과 이해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일 이 모임에 지리학자가 참여하면 인접분야의 관심사를 수렴하여 종합적인 지식을 창출할 수 있다. 오늘날 서울에 관한 연구물 대부분이 史料에 의한 제도사적 접근에 그치고 있으며, 또 현대의 서울을 다룬 연구들도 팽창일로에 있는 도시문제를 다룬 도시공학적인 일차원적 방식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서울에 관한 연구들은 부분적으로 조합된 뼈대들만 기계처럼 움직일 뿐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서울학은 그 뼈대에 살을 붙이고 생명을 불어넣어 서울에 관한 연구를 ‘서울학’의 차원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⁴⁴⁾ 이러한 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길은 학제간의 상호연관성을 공동의 領域 안으로 모아서 종합하는 지역연구 전통을 수립하는 것인데, 지리학은 地域을 연구의 핵심으로 삼기 때문에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믿는다.

42) Sauer,C.O., 1925, "The morphology of landscape", *Univ. of California Publication in Geography*, Vol. 21 No. 27, p. 322

43) Fenneman,N.M., 1919, "The cricumference of geography", *Annals of the A.A.G.*, Vol. 9, p. 3

44) 全相運, 1994, "서울학 연구와 발전방향", 서울학연구 창간호, pp. 16-17

지리학에서의 서울학 연구는 歷史地理的 接近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서울이 600년 역사를 가진 古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서울은 근대화 과정에서 형태와 구조가 크게 바뀌어 새로 건설된 재개발 도시라는 인상을 풍기고 있는데, 이는 토지의 경제적 효율성과 일제에 대한 민족적 감정을 앞세워 조선시대의 고건물이나 일제시대의 건물들이 그 역사적 중요성이 무시된 채 헐려 없어졌기 때문이다.⁴⁵⁾ 물론 고건축물의 파괴행위는 日帝의 京城市區改正事業을 효시로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한 중요한 변화는 景福宮의 훼손, 光化門 앞의 광장 건설, 敦化門 앞에서 남산 밑에 이르는 종관도로 건설 등을 들 수 있다.⁴⁶⁾ 도성 밖의 변화로는 남대문에서 한강교에 이르는 신시가지 건설을 들 수 있다. 이곳에는 서울역, 용산역과 차량기지, 군사시설, 일인들의 주택지구 등이 입지하여 일제의 한반도 경영의 신경중추라 할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로써 용산일대는 마치 일본 전통도시의 城下町과 유사한 구조와 기능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⁴⁷⁾ 그러나 서울의 전통적 도시경관을 구조적으로 파괴한 책임을 일인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6·25의 참화 속에서도 파괴되지 않았던 건물들과 조직이 최근 30년간 대규모로 소멸되고 인공적 경관의 차원에서 유래하는 새로운 종류의 도시미가 전통적 경관미를 압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울은 역사도시로서의 발달과정을 通時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역사지리적 시각에서 보면 서울은 틀림없는 역사도시이다. 지리학자는 오늘의 서울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復原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의 발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전문인으로서 마땅히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功過를 비교·검토하여 합리적인 미래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경관의 복원과 변천과정을 연구할 때 지리학자들은 靜態的 方法과 動態的 方法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정태적(평면적) 방법에는 斷面法과 多斷面 比較법이 있다. 전자는 특정한 시대의 지리를 복원하여 그 특성을 설명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하여 시기별 단면도를 복원하여 지리적 변화상을 비교, 고찰하는 방법

45) 金光鎬, 1994, “歷史都市 서울과 日帝의 都市風景”, 都市와 歷史(94 서울학 국제 심포지움), 서울학연구소, P. 106

46) 金光宇, 1992, “大韓帝國時代의 都市計劃”, 향토서울 50호, P. 97

47) 崔永俊, 1989, “朝鮮時代 漢陽의 郊地城 研究”, 문화역사지리 창간호, P. 6

이다. 이 방법들은 연구자료가 풍부한 시대를 연구하는데 많이 활용되나 지속적인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없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⁴⁸⁾

동태적(과정연구)방법에는 順次的 占有法과 수직적 방법이 있다. 전자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시기들을 복원하여 시기별 특성을 고찰하고 그 변화상을 설명하는 방법인데, 미국의 경우 인디안 지역을 백인 수렵자, 삼림벌채민, 농민 등이 順次的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과정을 연구하는데 많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생태학적 접근법은 서울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다. 후자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지역의 지속적 변화과정을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다른 방법에 비해 변화과정을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연구자료가 풍부하지 않은 시기에 관한 설명이 용이하지 않다.⁴⁹⁾ 그러나 최근에는 현재의 경관으로부터 가까운 과거를 거쳐 먼 과거까지 소급하여 原景觀에 도달하는 팔립프세스트⁵⁰⁾라는 연구법이 활용되고 있는데, 한강의 유로변화를 이 방법으로 연구할 경우에 우선 현재의 유로를 그리고 이어서 한 단계씩 시대를 소급하여 유로변천 복원도를 작성한 후 복원도 가운데 가장 먼 과거의 것부터 차례로 쌓게 된다. 이를 투시하면 한강의 유로변화과정을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리학에서의 서울학 연구자료들은 우선 一次資料여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자료들 대부분은 과거의 지배자들이 세금징수, 인력동원 등 행정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非地理的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만들어진 시기도 다양하다. 지리학자들은 이 자료들을 가지고 과거를 복원하여 공간패턴을 밝히는데,⁵¹⁾ 이는 마치 시간을 통한 여행과 같은 것으로서, 연구자 자신은 이 자료를 통해 과거를 경험하게 된다.⁵²⁾ 지리학에서 과거를 복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 고고학적 자료, 항공사진과 우

48) Baker, A.R.H., 1975, *Historical Geography and Geographical Change*, Macmillan, pp. 3~4

49) Baker, A.R.H., 상계서, pp. 6~9

50) Crawford, O.G.S., 1954, *Archaeology in the field*, London: Phoenix House, p. 51

「Palimpsest란 본래 양피지에 여러차례 썼다가 지우는 작업을 반복하여 완성된 문서를 의미한다. 역사지리학적 개념으로는 오늘날의 경관 역시 팔립프세스트처럼 인간이 지표면에 남겨놓은 역사시대의 기록에 비유된다는 것이다.」

51) Koroseili, P.M., 1971, "Historical Geography: A surrection", *Journal of Geography* LXX(7), Chicago: National Council for Geographic Education, pp. 415~416

52) Butlin, R.A., 1993, *Historical Geography through the Gates of Space and Time*, London: Edward Arnold, p.

주선 영상자료, 지도류, 통계자료, 고문헌, 지명 등 매우 다양하다.⁵³⁾ 그러나 서울학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 기초자료에 관한 조사작업이 수행된다면 연구자료의 종류와 내용은 보다 풍부하고 다양해질 것이다.

1) 考古學的 자료

先史考古學 분야와 歷史考古學 자료로 구분된다. 전자는 미사리, 암사동,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 풍납리 토성, 아차산성 등 선사시대 및 고대의 유적지의 취락 및 경작지터, 고분, 방어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선사유적지들은 대부분 한강변의 하안단구와 범람원상에 분포한다. 후자는 고려 및 조선시대의 유적지로서 문헌상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과거의 서울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취락, 경지, 채석장, 도로, 교량, 생활용구, 수레, 선박 등으로 구성된다.

2) 항공사진과 우주선 영상

인간이 지표면에서 육안으로 감지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시설이나 경관도 高空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이나 우주선 영상으로는 파악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遠隔探查 기법은 항공술과 광학의 발달에 힘입은 것이다. 최근에는 地理情報體系의 기법으로 문화유적이 분포하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찰하여 어떤 지역이 문화자원을 포함할 확률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⁵⁴⁾

3) 지도류

지도는 한 지역의 자연 및 인문현상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일종의 그림이다. 한 장의 정밀한 지도는 수권의 책에 못지 않은 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지역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서울학 연구에 활용되는 지도는 전통적 기법으로 그린 일종의 그림지도와 측

53) Mitchell, J.B., 1967, *Historical Geography*, London: The English Universities Press, pp. 20~38

54) 성효현, 1992, "서울시 선사문화자원 분포에 관한 예측 모델: GIS 활용연구", 문화역사지리 4호, p. 177

지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되는 현대식 지도가 있다.

서울의 고지도들은 대개 18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서 首善全圖, 都城圖 등 수십종의 한성부 지도와 景福宮古圖, 京畿監營圖 등 상세도 등이 있다. 현대 지도로는 1896년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제작한 1:50,000 지형도를 비롯하여 개화기와 일제시대에 제작된⁵⁵⁾ 1:10,000 지형도, 1:12,000 경성시가도(1910) 등 여러 종류의 대축척지도와 시가도가 있다. 근래에는 항공사진측량법을 이용한 1:50,000, 1:10,000, 1:5,000 지형도들이 우리 기술로 제작되었는데, 특히 서울시 전역을 카바하는 1:1,200 항축도는 정확성과 수록내용상 서울학 연구에서 가장 가치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1:500지적도(1908), 1:1,200 지적도(1927), 1:6,000 지적도(1936) 등이 있다. 이러한 고지도 및 현대지도들은 서울의 지형변화상은 물론 도시구조, 토지이용 등의 변천과정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4) 통계자료

통계는 지역사정을 가장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과거의 복원은 물론 현재의 도시계획의 기초가 되고 도시의 미래를 예측하는 바탕이 된다. 서울학 연구에 활용 가능한 통계로는 正祖代의 『戶口總數』, 金正浩의 『大東地志』,⁵⁶⁾ 구한말의 『韓國戶口表』,⁵⁷⁾ 일제시대의 『朝鮮國勢調查報告』,⁵⁸⁾ 해방 후의 인구센사스, 도시연감, 서울시 통계연보, 상공업센사스 자료 등이 있다.

5) 각종 文獻

서울의 역사, 지리, 생활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조선시대의 實錄, 고문서, 地誌 등이 있고, 개항기 및 일제시대의 자료로는 외국인의 기행문, 총독부의 지방사,

55) 정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917년에 학술연구용 지도를 출판한 후 수차의 수정판을 발행하였다.

56) 漢城府 및 주변 군현의 인구, 田結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57) 1907년 구한국정부 재정고문본부에서 발간한 통계자료로서 戶數, 성별인구 등을 수록.

58) 1925년부터 5년 간격으로 간이조사, 10년 간격으로 정기조사를 실시한 인구통계로서 흔히 Census라고도 한다.

사진집, 토지대장, 문서 등이 있다. 최근에는 문헌의 내용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으나 문헌자료에 관한 기초조사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주요 문헌 자료를 시대별로 나눠 보면, 조선시대의 『왕조실록』, 『新增東國輿地勝覽』, 『日省錄』, 『名司謄錄』의 京畿道편, 『擇里志』, 『漢京識略』 등이 있으며, 일제시대의 것으로는 京城府史, 京城發達史 등 많은 역사서와 지지가 있다. 광복 후에는 百南信의 『서울大觀』, 시사편찬회의 『서울六百年史』 등이 있고, 1970년대 이후 지리학계에서 발표된 다수의 학위논문들이 있다.

6) 地名

地名은 인간의 이동과 정착과정, 취락의 성쇠, 환경변화의 과정 등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단서를 제공한다.⁵⁹⁾ 서울은 선사시대부터 한반도의 요지로 주목되었기 때문에 조상들의 활동상의 지명 속에 많이 남아있다. 서울지역 지명은 기원에 따라 백제·고구려계, 신라계 등 고대지명, 고려 및 조선시대의 지명, 일제시대의 倭式지명, 현대지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대지명은 최초로 吏讀로 표기하다가 점차 漢字式으로 바뀌었으며, 일제시대에 왜식지명이 추가되었고 최근에는 서양식지명까지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지명 연구물로는 한글학회의 지명사전(서울편)과 서울시사편찬위원회의 洞名沿革攷 등이 있는데, 단순한 지명의 유래 수준을 넘는 체계적이며 분석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5. 결 론

韓半島의 중앙부에 입지하는 서울은 과거 600여년간 우리 나라의 심장부 역할을 해온 歷史都市이다. 서울은 오늘날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의

59) Mitchell, J.B., 전계서, pp. 22~25

기능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의 人口過密化를 유발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도시의 면적과 기능면을 볼 때 서울은 이미 適正의 인구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세계의 거대도시 중에 가장 생활여건이 열악한 도시 중의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서울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地理學的 觀點에서 볼 때 이 시도에는 마땅히 명백한 목표와 전통이 수립되어야 하며 또한 독특한 접근법의 개발도 필요하다.

우선 서울의 연구가 '서울학'으로 그 位相을 정립하려면 서울의 참모습 재발견을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서울은 본래 수려한 景觀美를 자랑하던 쾌적한 도시였으나 일제시대 이래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 속의 서울'을 지향한 분위기 속에서 도시계획 입안자들이 줄속으로 대수술을 감행함으로써 전통적 조직과 구조에 손상을 받았다. 세계 속의 서울은 서울이 선진국 대도시를 닮기 위해 탈바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수도 서울로 영원히 남으면서 뚜렷한 위상을 지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학은 성형수술 이전의 서울의 모습을 복원하고, 그것을 보존하는 대책의 마련을 하나의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둘째, 서울학은 地域科學的 傳統을 수립해야 한다. 오늘날 서울에 관한 연구 성과가 여러 분야에 의해 이룩되었으나 그것들은 대체로 문헌을 이용하여 과거의 서울을 제도사적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물, 서울의 각종 사회문제를 파헤친 연구물, 도시기능상의 문제점 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도시공학적인 연구물 등으로 나눌 수 있을 뿐이지, 살아 움직이는 서울의 모습을 구조적 및 종합적으로 파악한 성과는 별로 없는 편이다. 이 문제는 서울학에 참여하는 모든 학문들이 '서울 땅'을 학문의 터전으로 삼는 형제라는 인식 하에 學際間的 협력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서울학을 하나의 지역과학으로 승화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점에서 地域을 학문 연구의 核心으로 여기는 지리학은 서울이라는 터전을 지키며 학제간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서울은 역사도시이므로 과거의 서울 모습은 시대마다 달랐을 것이다. 서울의 옛 모습을 재현하는 방법으로는 특정시대의 斷面 復原法, 多斷面 비교법, 通時的 고찰법, 현재의 景觀으로부터 가까운 과거를 거쳐 먼 과거의 原景觀에 도달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이 방법들이 서울의 연구에 최선의 것은 아니다.

넷째, 서울은 수백년간 한반도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만큼 서울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자료는 매우 풍부하다. 주요 연구자료로는 史書, 古文書, 地誌, 지도, 통계자료, 그림과 사진, 건물, 도로, 성곽, 농경지와 관개시설, 생활용구 등 매우 다양하다. 다만 그러한 자료 중의 상당한 분량이 외국으로 유출되었고, 국내의 자료들조차 목록의 정리 상태가 미흡한 실정이다. 서울학의 선결과제의 하나는 이러한 자료의 정리와 내용의 분석이다.

서울학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이 서울 땅을 공동의 터전으로 삼고 향토의 자연과 문화를 구체적,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각 지방에서 향토의 자연환경과 문화전통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할 때 서울학이 그 모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